

numbers 제 45호



주요 내용

2020. 05.01

1.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2. 21대 총선 결과 분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2020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관객수 1000만 명을 넘긴 영화 '부산행'의 마지막 장면은 마치 신학의 '남은자 사상'처럼 좀비(악마)들의 공격을 따돌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임산부와 남자 어린이이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인류의 역사를 이어갈 다음세대를 향한 인간의 희망을 보여준 장면이다. 코로나19로 사회 전체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우울함으로 지내고 있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이 성큼 다가왔고, 다음 주에는 어린이날을 맞는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45호는 우리나라 아동 관련 데이터를 정리해 보았다. 우리나라 아동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넘버즈]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통계적 근거로 몇 가지를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사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자연 어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한국 교회가 교회학교 학생들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아울러 교회학교와 부모 교육 전략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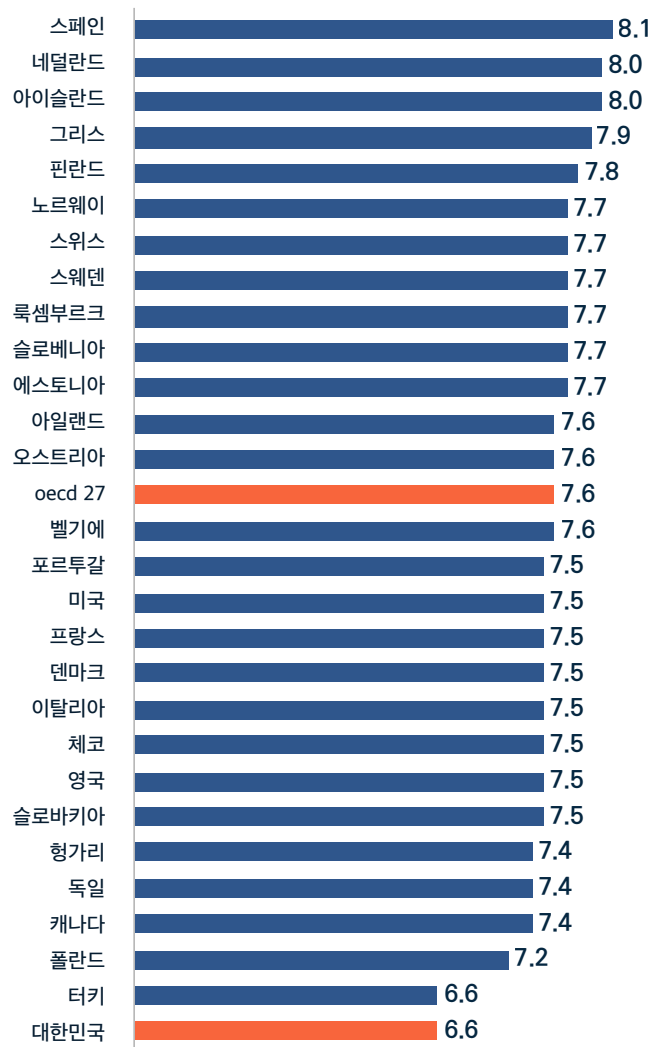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에서 최하위권

- 우리나라의 11세, 13세, 15세 아동들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6점으로, OECD 27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27개국 평균 점수는 7.6점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1점 가까이 낮은 점수이며, 우리나라와 터키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7점대를 기록함

[그림] OECD 국가 아동 행복도 비교(27개국)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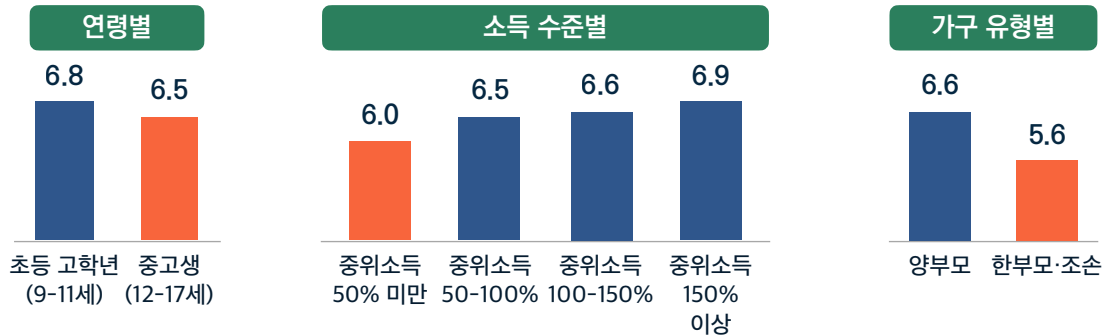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note : OECD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고, 한국점수는 2018년 측정치임.
 OECD(2015).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11점 척도로 0점 '가장 행복하지 않음'부터 10점 '가장 행복'까지 응답함)

● 한국 아동행복도, 소득이 낮을수록, 한 부모 가정에서 더 낮음

- 한국의 아동행복도는 초등학생 보다는 중고생에게서 더 낮음
-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 또는 조손 가정 아동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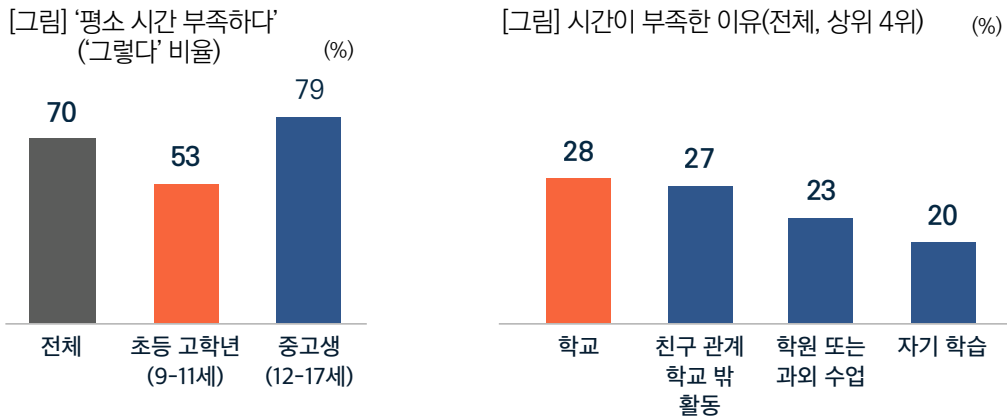
[그림] 삶의 만족도(행복도) (점)



*자료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17세 이하 아동 4,039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note: 삶의 행복도 척도는 11점 척도 단일 문항으로, 0점(가장 나쁜 삶)부터 10점(가장 좋은 삶)까지 응답

2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1 : 아동의 70%가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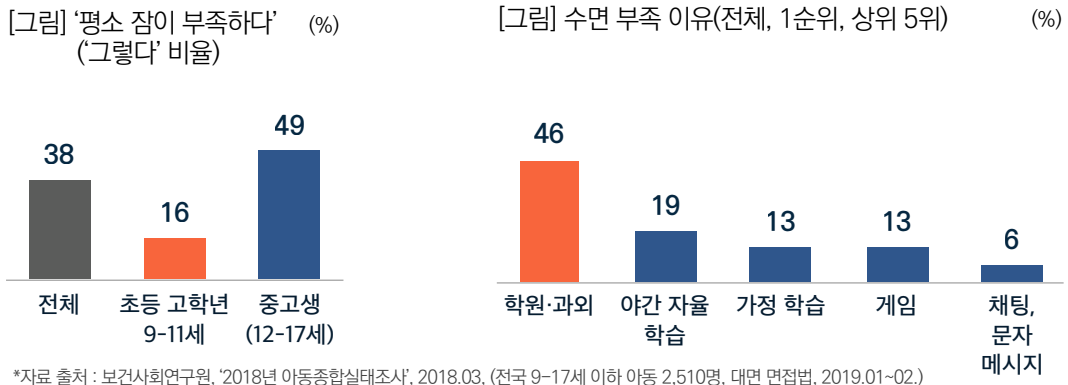
- 한국의 아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왜 행복하지 않은걸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나라 아동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즉 70%의 아동이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학교'(28%), '학원/과외'(23%), '자기 학습(20%) 등이 작용하고 있는데, 아동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공부와 관련 있음



*자료 출처: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면접법, 2019.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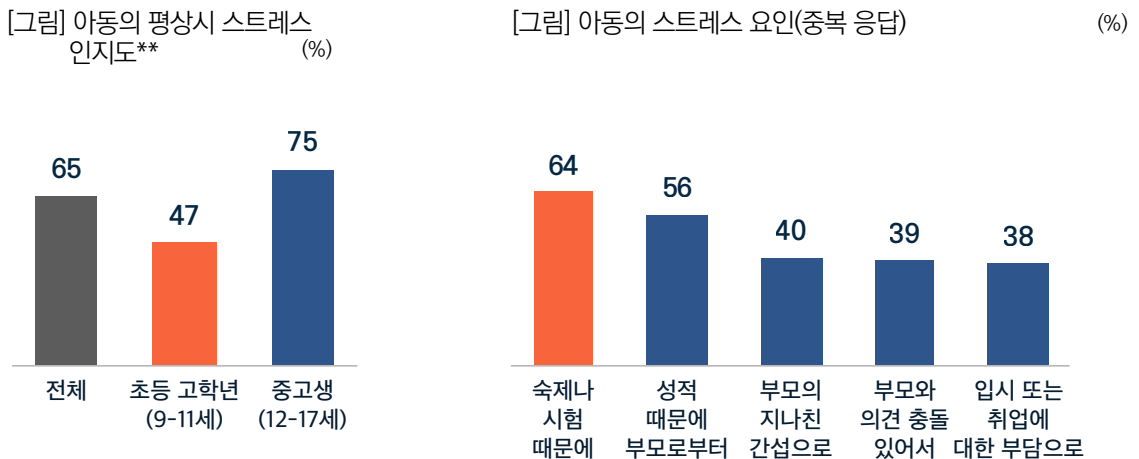
●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2 : 아동의 38%가 “잠이 부족하다”

- 두 번째로 한국 아동들은 잠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음
평소 수면과 관련 전체적으로 38%의 아동이 ‘잠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고생의 경우 49%가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3 : 아동의 65%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 세 번째, 한국 아동 3명 중 2명이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생(고학년)의 경우도 절반 가까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가 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적 때문에 부모로부터’ 56%, ‘부모의 지나친 간섭’ 40%, ‘부모와 의견 충돌’ 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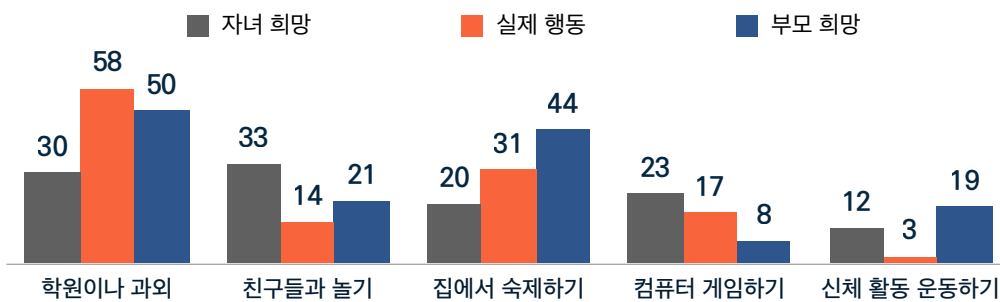
** ‘대단히 느낀다+많이 느낀다+조금 느낀다’의 비율임

***Note) 스트레스 정의 : 짜증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하거나 불안감을 느낌

●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4 :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산다는 상실감

- 네 번째, 한국 아동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점임
- 본인의 희망과 실제 행동과 가장 격차가 큰 것은 ‘학원/과외’로 나타났는데, 즉 ‘학원/과외’에 대해 본인의 희망은 30%이지만 실제 행동은 58%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다음으로 격차가 큰 것은 ‘친구들과 놀기’인데 본인 희망은 33%인데 반해, 실제 행동은 14%에 머무름
- 그러나 부모의 희망은 ‘학원/과외’ 50%, ‘학교 숙제’ 44%, ‘친구와 놀기’ 21%로 나타나 자녀의 희망과 큰 격차를 보임

[그림] 방과후 활동에 대한 자녀 희망 vs 실제 행동 vs 부모 희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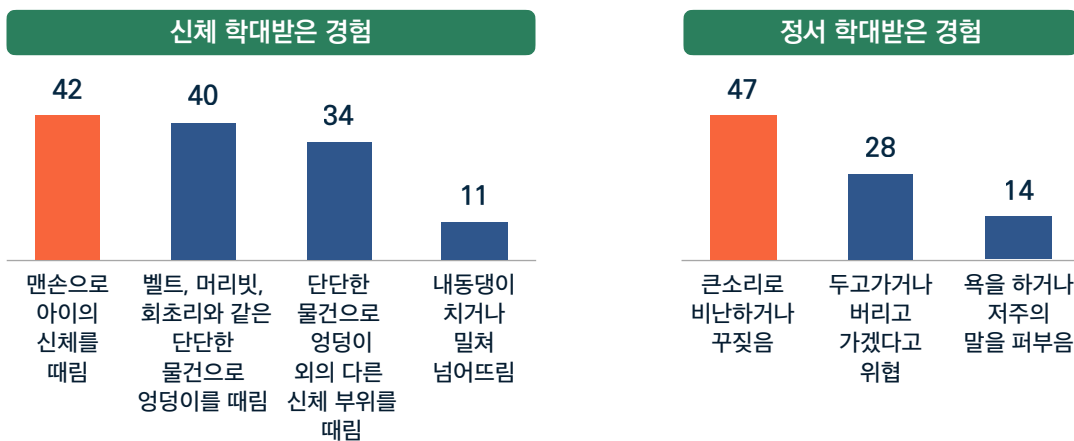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 한국 아동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5 : 부모로부터의 신체 학대와 정서 학대

- 다섯 번째, 상당수의 아동들이 부모에게서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점임
- 즉 신체 학대 관련, 30-40%의 자녀가 단단한 물건으로 맞은 경험이 있으며, 내동맹이 치거나 밀쳐 넘어뜨림을 당한 경우도 11%나 됨
- 정서 학대 관련, 두도가거나 버리고 가겠다고 위협 받은 경우가 28%, 욕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들은 경우도 14%나 됨

[그림] 부모에게서 학대받은 경험(신체 학대 vs 정서 학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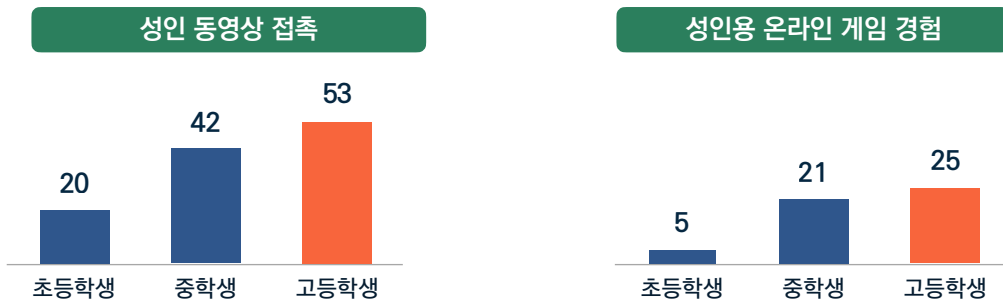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 (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대면 면접법, 2019.01~02.)

3 초등학생 중 최근 1년간 '성인용 동영상 봤다' 20%

- 최근 1년간 성인용 동영상을 봤다는 비율은 초등생 20%, 중학생 42%, 고등학생 53%로, 초등생은 5명 중 1명꼴로, 고등학생은 2명 중 1명꼴로 접촉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아동의 유해 매체 이용 경험률(2018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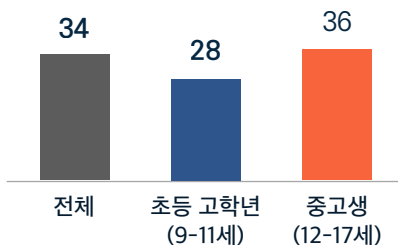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 2018.12(전국 초중고 학생 15,675명, 표본대상 학교에서 집단면접, 2018.07-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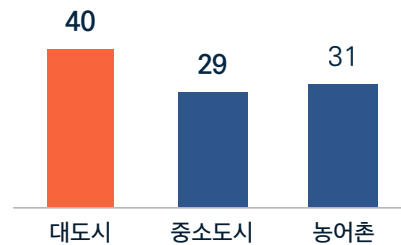
● 한국 아동 3명 1명,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계속 스마트폰이 생각나 이용시간 통제를 못해, 다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가족과 다투는 등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함
- 과기부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한 결과, 우리나라 아동 중 34%가 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초등학생(고학년)은 28%, 중고생은 36%임
- 대도시 지역 아동들이 중소도시/읍면 지역 아동들보다 과의존군이 더 많음

[그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군 비율 (%)



[그림]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군 (지역별 크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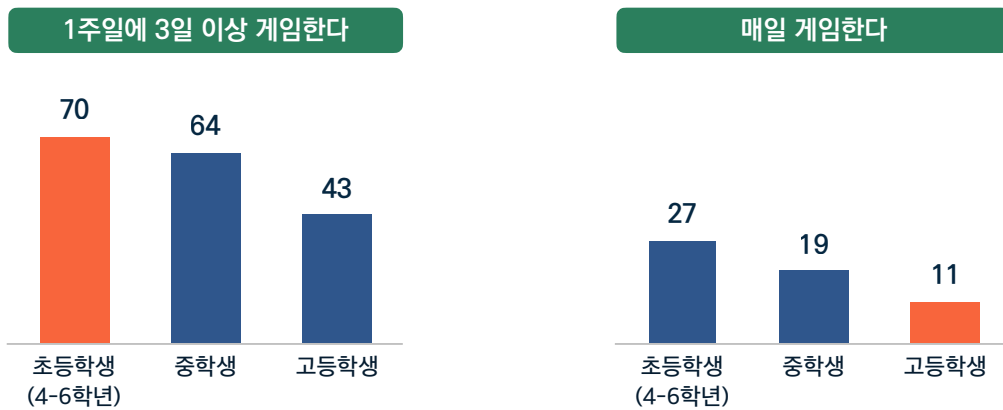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18.03(전국 9-17세 이하 아동 2,510명, 부모 2,793명, 대면면접법, 2019.01-02.)

4 초등학생, 1주일에 3일 이상 '게임한다' 70%

- 초등생(4학년-6학년) 10명 중 7명 가량이 1주일에 3일 이상 게임(컴퓨터, 비디오, 핸드폰 게임 등)하는 것으로 나타남
- 1주일에 3일 이상 게임하는 비율은 중학생 64%, 고등학생 43%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함

[그림] 게임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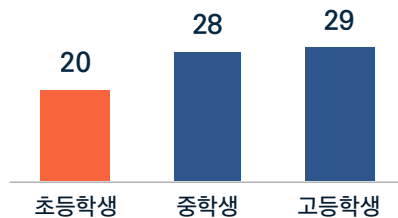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차, 2019.05. (전국 초등4학년~고3 학생, 7,454명, 배포-수거 방식에 의한 자기 기입식, 2019.03-04)

5 초등학생, '자살하고 싶은 충동 느낀 적 있다' 20%

- 초등생 5명 중 1명 가량은 자살 충동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자살 충동 경험은 중학생 28%, 고등학생 29%로 초등학생보다는 높게 나타남

[그림] '자살하고 싶은 충동 느낀 적 있다'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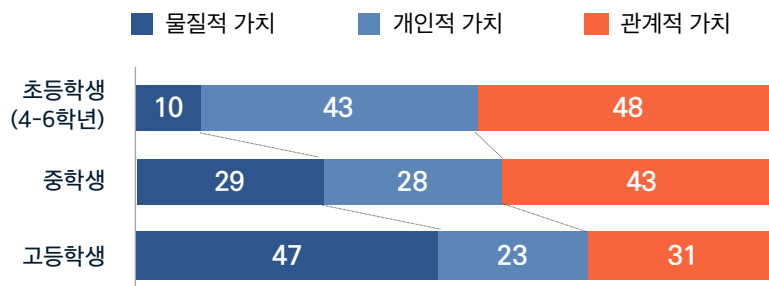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차, 2019.05. (전국 초등 4학년~고3학생, 7,454명, 배포-수거 방식에 의한 자기 기입식, 2019.03-04)

6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초등학생은 관계적 가치를, 고등학생은 돈을 가장 높게 생각

-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초등학생(4-6학년)은 가족이나 친구같은 관계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물질적 가치(돈)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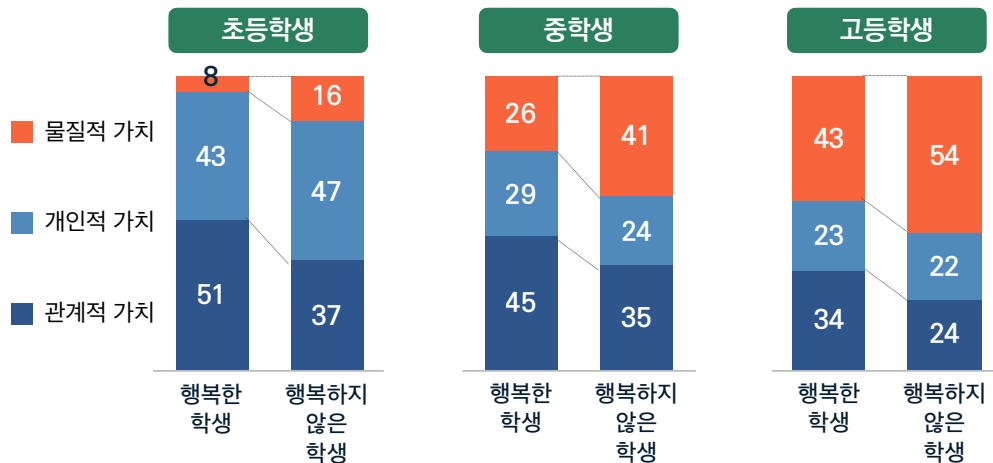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차, 2019.05. (전국 초등4학년~고3 학생, 7,454명, 배포-수거 방식에 의한 자기 기입식, 2019.03-04)
 **note : 물질적 가치(돈), 개인적 가치(종교, 성적, 자유 등), 관계적 가치(가족, 친구)

●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관계적 가치를 중시하고, 돈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함

- 전체 학생을 행복한 학생(5점 만점 중 4점 이상)과 행복하지 않은 학생(3점 이하)을 구분하고,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면, 행복한 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학생보다 관계적 가치를 더 중시하고, 돈(물질적 가치)을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한 학생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관계적 가치 51%, 물질적 가치 8%로 응답한 반면, 행복하지 않은 학생은 관계적 가치(37%)가 줄어들고, 물질적 가치(16%)가 증가하는 인식 구조를 보임

[그림]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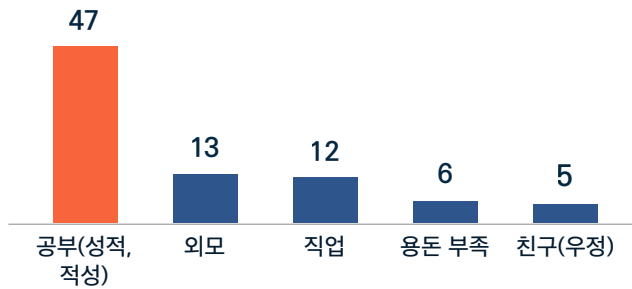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한국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2019년 11차, 2019.05. (전국 초등4학년~고3 학생, 7,454명, 배포-수거 방식에 의한 자기 기입식, 2019.03-04)
 **note : 물질적 가치(돈), 개인적 가치(종교, 성적, 자유 등), 관계적 가치(가족, 친구)

7

아동의 고민거리, ‘학업’ 1위, ‘외모’ 2위

- 우리나라 아동의 고민거리는 ‘학업’(47%)이 압도적으로 1위이며, 다음으로 ‘외모’(13%)가 2위를 차지함

[그림] 아동의 고민거리(13-18세,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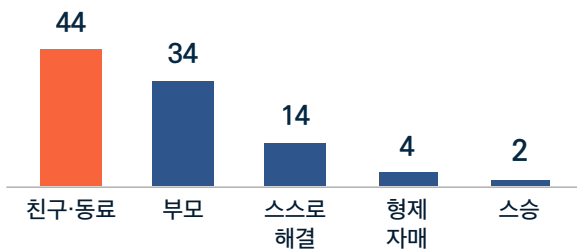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 2018.11.06. (전국 39,000명, 대면 조사, 201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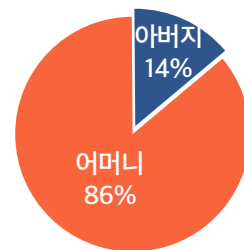
● 고민거리 상담 대상, 친구·동료 44% > 부모 34%

- 아동의 고민거리 상담은 ‘친구·동료’가 44%로 1위이며, 부모가 34%로 2위임
- 부모 중에서는 어머니 상담 비율이 86%이며, 아버지의 자녀 상담 비중은 14%에 지나지 않음

[그림] 아동의 고민거리 상담 대상(13-18세, 상위 5위)(%)



[그림] 부모의 자녀 상담 비중 (%)



*자료 출처 : 통계청, '2018년 사회조사', 2018.11.06. (전국 39,000명, 대면 조사, 2018.05)

8 시사점

아동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의 미래'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미래'가 아프다. 공부 때문이다. 공부가 아동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들게 한다(8쪽). 그들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다.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 오히려 그들을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역설이 빚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왜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기 위한 노력을 할수록 자녀는 아플까? 이 사회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더 나은 미래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경쟁으로 사람들을 내모는데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생존이 위협받는 각자 도생의 '서바이벌 사회'이다. 이것을 잘 아는 부모가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자식들을 다그치는 것을 비난만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그러므로 아픈 것은 자녀만 아니다. 부모도 아프다. 성공주의를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 가치를 전수하며, 주입하고 물들게 한다. 어찌보면 이 시대의 부모는 자신이 아픈 것도 모른 채, 혹은 아픈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려면 부모에 대한 치유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부모가 알아야 한다. 그럴려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모가 배워야 한다. 그래야 성공만 유일한 가치라고 험박하는 세상의 위협을 이겨내서 세상과 다른 행복관을 추구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부모 노릇하기'를 할 수 있다.

한국방정환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복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친구·가족과 '관계적 가치'를 중시하고 '돈'을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쪽). 어릴 때부터 돈보다는 사람과 관계, 즉 친구, 선생님, 가족을 위해 배려하고 섬기는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 교회탐구센터에서 작년에 실시한 '개신교 중고생의 신앙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신앙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으로 '어머니'가 32%로 압도적으로 1위로 나타났다. 교회학교 교사는 6%로 가장 낮았다. 본 보고서에서도 제시한 '학생들의 고민 상담자'로서 부모가 친구 다음으로 2위였는데, 부모 중 어머니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0쪽).

종합하면, 교회가 어머니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회학교 교사로서 어떻게 훈련시키는가가 한국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이며, 건강한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총남 당진의 동일 교회가 그런 예인데, 부모가 교사로 훈련받으면서, 직접 자기 자녀의 교회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교사)-가정(어머니)-자녀', 이 삼각 시스템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 것인가가 한국 교회 다음세대 전략의 Key가 될 것이다.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21대 총선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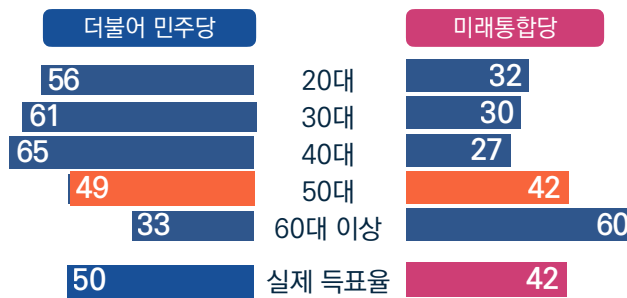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 지난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 총 300석 중 180석을 차지한 집권여당의 승리로 마쳤다. 선거 이후 여당의 승인, 야당의 패인에 대한 언론 분석 기사가 상당수 쏟아져 나왔는데, [넘버즈]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1 50대 연령층, 이번 선거의 바로미터가 됨

- 21대 총선 출구조사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 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49%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연령에 비해 실제 더불어민주당이 득표한 50%와 가장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연령대별 지역구 투표 후보 정당(출구조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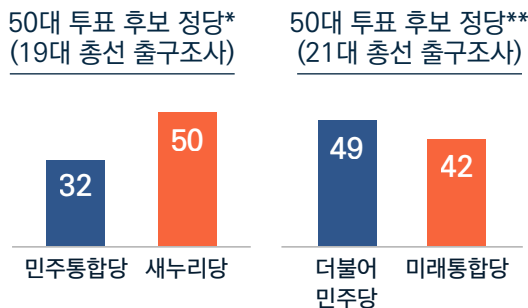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KBS. '50대 선택이 총선 승부 갈랐다', 2020.04.18(전국 2,323개 투표소 총 425,915명, 출구조사, 2020.04.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7439>

● 50대 연령의 정치 성향, 8년 사이 보수에서 진보로 뒤바뀜

- 2012년 19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50대 연령층은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에게 50%,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에게 32%로 각각 투표해 보수 성향이 강했는데, 8년이 지난 이번 선거에서는 50대 층에서 진보 성향 층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이는 50대 층의 고학력 비중이 높아지는 결과가 진보 정당 지지율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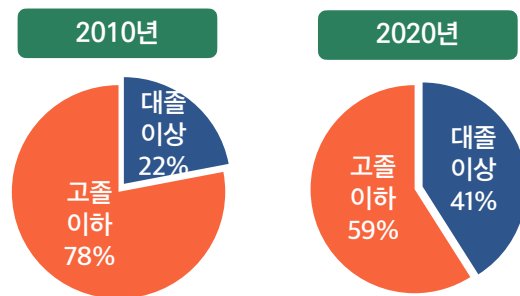
[그림] 50대층의 총선 출구조사 결과(19대 vs 21대) (%)



*자료출처 : 경향신문, '아권지지 성향 2030세대...서울서만 '투표의 힘' 발휘', 2012.04.1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204122210525

**자료 출처 : KBS. '50대 선택이 총선 승부 갈랐다', 2020.04.18(전국 2,323개 투표소 총 425,915명, 출구조사, 2020.04.1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27439>

[그림] 50대 연령의 학력 분포(2010년 vs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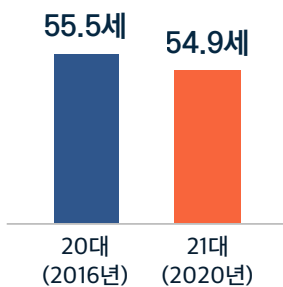
*자료출처 : 통계청, '각 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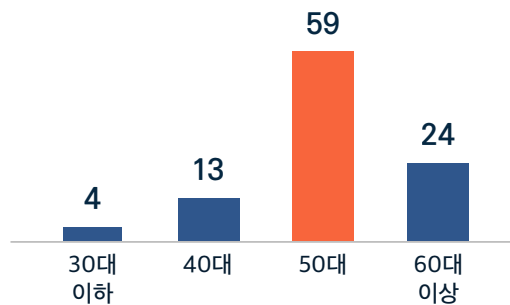
국회의원, 4년 전보다 젊어져(55.5세 → 54.9세)

- 이번 21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 연령은 54.9세로 나타났고, 50대가 59%로 주를 이룸
-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선자의 평균 연령(55.5세)과 비교하면 0.6세 젊어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총선 당선자 평균 연령(20대 vs 21대)



[그림] 21대 총선 당선자 연령별 분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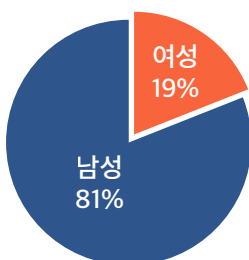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저널, '절반 이상이 초선...21대 국회 젊어졌다', 2020.04.1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90>

● 21대 총선 당선자 중 여성 비율, OECD 최하위권(36개국 중 32위)

- 이번 21대 총선 당선자 중 여성은 20대(51명)에 비해 6명 늘어났지만 전체 당선자에서 19%를 차지하여 여성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OECD 회원국과 비교(2019년 기준)하면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19%)은 36개 회원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임(OECD 평균 30%, 1위 멕시코 48%, 36위 일본 10%)

[그림] 21대 총선 당선인 성별 비율



[그림] 21대 총선 당선인 여성 비율 (OECD 국가 비교,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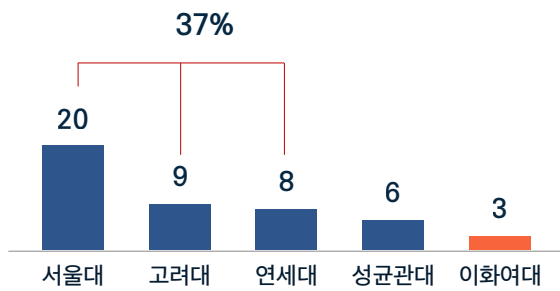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시사저널, '절반 이상이 초선...21대 국회 젊어졌다', 2020.04.1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90>

**자료출처 : OECD, 'Gender equality in politics', 2019.11.14, <https://www.oecd-ilibrary.org/sites/c06602e5-en/index.html?itemId=/content/component/c06602e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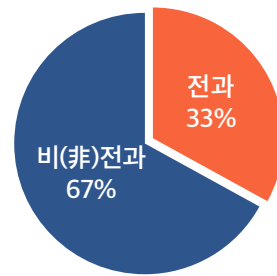
● 21대 총선 당선자 출신 대학, 서울대 > 고려대 > 성균관대 > 연대

- 21대 총선 당선자의 출신 대학을 보면 3명 중 1명 이상(37%)은 소위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으로 여전히 다른 출신학교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또한 당선인 중 전과자는 33%로 나타남

[그림] 21대 총선 당선인 출신 대학(상위 5위) (%)



[그림] 21대 총선 당선인 전과자 비율 (%)




*자료 출처 : 시사저널, '절반 이상이 초선...21대 국회 젊어졌다', 2020.04.17.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8890>

3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코로나19 회복 이후 자신의 삶의 변화 예상 관련 조사 결과](#)
매일경제_2020.04.24.
 “10명중 3명 ‘수입 절반 넘게 줄어’…53%는 “집에서 직접 요리”
-  [한국, 2020년 경제성장률 선진국 중에서 1위](#)
중앙일보_2020.04.29.
 “무디스, 韓성장률 전망 -0.5%로 하향..선진국 중에선 1위”
-  [미국의 비싼 병원비의 심각성, 코로나치료 포기](#)
시사주간_2020.04.29.
 “미국 7명 중 1명, 병원비로 ‘코로나19’ 치료 포기”
-  [국민이 원하는 국회의 역할, ‘국민통합’ 1위](#)
연합뉴스_2020.04.29.
 ““국민 31%, 일하는 국회 위해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 주문””
-  [인구 자연 감소 본격적 시작](#)
연합뉴스_2020.04.28.
 “인구 사상 처음 4개월째 자연감소…‘사망자 늘고 출생아 줄어”
-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19 발표](#)
연합뉴스_2020.04.27.
 “국내 천주교 신자 591만명…전년보다 0.8% 증가 그쳐”
-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농림축산식품부\)](#)
한국경제신문_2020.04.28.
 “전국 반려동물 856만마리…‘동물학대 목격시 신고’ 응답 45%”

스토리가 있는 기사

-  [아동학대 가해자 1위는 친모](#)
중앙일보_2020.04.27.
 “가해자 절반이 무직…실직→아동학대 고리 차단해야”
-  [코로나! 한국이 난생처음 개도국 열등감에서 벗어난 일대 사건](#)
중앙일보_2020.04.27.
 “코로나가 권력을 좌측으로 밀었다”

넘버즈 칼럼

진짜 민심은 언제나 그렇듯 회색일 뿐입니다

이한상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선거가 끝났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정 지연이나 불상사 없이 평화적인 선거를 마쳤다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껴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우리 정도가 제1세계 수준의 선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역구 의석에서 여당이 제1야당을 더블 스코어로 이긴 선거였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랜드슬라이드(landslide), 즉 압도적이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여권의 정치적 승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축하를 통합당에는 위로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군요. 사실 1+4 선거제도 개편이 이렇게 양당제를 강화하는 부메랑이 될지 예견하지 못하고 패착을 저지른 정의당과 바른미래당/민생당 관계자들은 그 댓가를 달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를 원했던 국민의 관점에서는 한발 후퇴한 선거 제도와 결과 아니었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개헌 정도만 빼고는, 아니 개헌까지도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개정된 국회법 제85조 2항의 신속 처리 대상 안건에 태워 이제 야당 반대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핑계 대던 것들을 소신껏 진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오롯이 감내하는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를 기대합니다. 통합당은 과거 중산층을 견인하던 성장 동력에 대한 비전을 상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갈팡질팡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더니 결국 대선에서 뿐만 아니라 총선을 통해서 박근혜 사망 선고 확인증을 접수해야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치러야 하는 수업료가 이렇게 크도록 만든 사람들은 물론 본인들 자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환호작약을 멈추고 커다란 왕관의 무게를 느낄 시간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박근혜 탄핵으로 준비 없이 국정을 접수한 후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 훼손이 있었고, 정치는 드루킹, 선거 개입, 측근 비리 옹호, 조국 사태, 선거법과 공수처법 엮바꿔 먹기 등 최악이었으며, 이북의 핵 문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코로나19와 역대 최악체 야당 덕이 아니었다면 싹쓸이가 힘든 판이었죠. 운도 분명히 실력이지만 운은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코로나19는 이제 경제에 큰 충격으로, 선거 호재가 아니라 현실의 엄청난 정책 부채로 다가올 것입니다. 빼어난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부터 보여준 이 정부의 경제 대응 능력에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는 것에 많은 경제인·학자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앞으로 항공 부문을 시작으로 칼바람의 구조조정 구간이 올 것이고 정부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대안을 만들고 준비하는 게 1번 아젠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방역과 경제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결과를 이번 정권이 벌인 헛발질들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로 생각하고 공수처-윤석열이 국정의 1번 아젠다가 되는 순간 내리막 길은 시작될 것입니다.

아래는 제가 그려본 이번 서울특별시의 선거 결과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의석 수만 본다면 용산-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해 파란색만 보이죠. 그러나 그게 민심이라고 착각하고 맘대로 행동하면 아니됩니다. 어떤 멍청이들은 왼쪽 그래프를 보면서 어떤 동네 사람들은 구제불능이라고 떠들던데 파란색의 민주당과 분홍색의 통합당 색을 득표율에 따라 팔레트믹스 해보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나

옵니다. 용산-서초-강남-송파에서도 민주당 후보들은 초 접전을 벌였으며,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이긴 아주 많은 선거구에서도 통합당 후보들이 무시하지 못할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회색빛, 여기서는 보라색이라는 것이 진실이지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은 오늘 축배를 드시고 맘껏 기뻐 하시되 선거의 결과를 왼쪽처럼 받아 들이고 지금처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젠다를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리고 민심은 푸른색 일색이 아니라 오른쪽과 같은 보라색이니까요.

통합당 여러분은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문재인 정부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국 여러분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월 대한민국에서 (1) 보수란 무엇인가, 어떤 가치인가? (2) 보수는 우리 국민에게 특히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과 비전을 보여 줄 것인가?를 붙잡고 당내의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환골탈태해 진짜 답안지를 마련한다면 달이 차고 기우는 이치와 같이 언젠가는 국정수행을 통해 지난번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거수기급의 영터리 국회의원들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야에서 실력자,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많은 분들이 여, 야 불문하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더욱 더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국회가 대한민국 일보 전진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해 봅니다. 부디 이번 국회의원들은 민심은 회색이라는 진실을 마주해 독단과 독선보다 협력과 상생으로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윙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훌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